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지금, 기업가 정주영이 필요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금, 기업가 정주영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i
1.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1
2. 기업가 정주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3
3.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주영의 기업가정신	7
【HRI 경제 통계】	11

< 요약 >

■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연구 배경)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대표적으로 카네기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정립하였으며, 포드는 생산 혁명과 함께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시켰고, 빌게이츠는 IT산업의 선도자, 스티브잡스는 IT 생태계 완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영, 이병철을 비롯한 기업가들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아산 정주영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실현한 한국 기업가의 대명사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목적) 기업가정신이 쇠퇴되는 오늘날, 정주영 13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가 보여준 기업가정신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발전과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기업가 정주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 정주영이 창업한 현대그룹은 1970년에서 1995년 사이 매출 규모가 251억 원에서 59.2조 원으로 증대되고, 한국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 비중 역시 2.5%에서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1975년 한국 전체 수출의 2.3%를 담당했던 현대그룹은 1995년에는 전체 수출의 11.3%를 차지하는 수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화학공업화 및 첨단산업화 선도) 한국의 초기 건설 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국가 인프라 건설에 공헌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사업들은 한국의 중화학 및 첨단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밖에 해운 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교역의 주요 운송 수단을 공급하는 등 한국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세계 수출 시장의 개척)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건설, 1970년대의 자동차 및 조선, 1980년대의 반도체를 비롯하여 각 시기에 따른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의 글로벌 시장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은 이들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시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1990년대 중반 1,200여 개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각 산업 전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을 물론,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통해 고용 증대시킨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주영을 통한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 명의 기업가가 국가 성장에 기여한 주요 사례로서 2000년대 핀란드 경제를 견인한 노키아와 비견될 수 있다.

<기업가 정주영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헌(1995년)>			
법인세	기업체 수	매출액	종업원
3,541.1억원	현대 계열사: 49개 협력업체: 1,248개	59.2조원	15.8만명
전체 법인세 대비 6.1%	전체 기업체 수 대비 (개인사업체 제외) 8.7%	전체 기업 매출 대비 9.3%	전체 기업 법인 종사자 수 대비 3.0%

자료 : 현대50년사, 한국은행, 통계청.

■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주영의 기업가정신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영과 같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경영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으로는 차세대 경영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발상의 전환을 이끈 창조적 사고) 발상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정주영의 창조적 사고는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방북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1,000마리가 아닌 1,000+1은 또 다른 교류의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가들에게도 이 같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업 발전의 도모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도전과 긍정의 캔두이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캔두이즘은 시설 건설, 선박 수주,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여 조선소 건설 비용 절감과 선박 가격 인하를 이룬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긍정과 도전을 통한 실제적 추진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차세대 기업가들도 캔두이즘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기업 혁신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세계지향의 글로벌 마인드) 사업 초기부터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을 감안하여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전략은 한국과 같이 작은 규모의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넷째, 신뢰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한·러 수교의 계기 마련 등 국제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공헌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약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했다. 단순히 기업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미래의 기업가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창조적 예지) 남북 협력 없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남북협력을 통한 민족의 균형 발전과 통일의 토대 마련을 도모했다. 관광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과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당국 간 대화 통로가 없던 당시, 비공식적 외교 채널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영의 노력에 기반을 둔 남북 상생의 경제통합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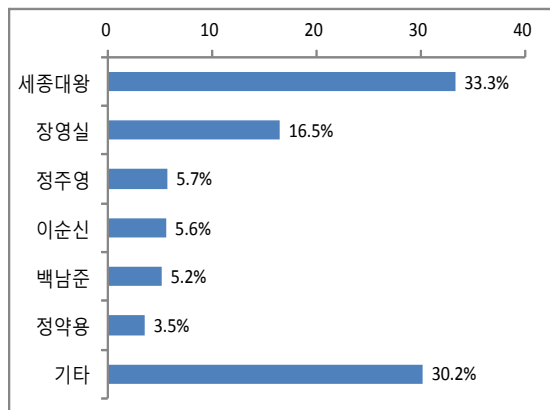
1.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 역사상 위대한 기업가는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혁신을 몰고 옴
 - 대표적으로 카네기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정립하였으며 포드는 생산 혁명과 함께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시켰고, 빌게이츠는 IT산업의 선도자, 스티브잡스는 IT산업 생태계 완성이 역할을 담당하였음
 - 이들은 기업가정신을 통해 자신의 사업 성장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업들을 구현했다는 공통점도 있음
- 국내에서도 정주영, 이병철 등이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
 -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도 이들의 기업가정신은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스스로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을 통해 기업과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됨
- 특히, 정주영은 투철한 기업가정신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실현한 한국 기업가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음
 - 기업가 정주영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가장 창조적인 기업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창조성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로 세종대왕과 장영실 다음으로, 기업인으로서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선택됨

<위대한 기업가들의 업적>

구분	내용
앤드류 카네기	- 서구 자본주의 체제 정립 - 카네기재단 설립
헨리 포드	- 생산혁명과 자동차 대중화 - 대량생산체제 완성
빌게이츠	- IT산업 선도자 - 빌게이츠재단 설립
스티브 잡스	- IT생태계 완성 - 아이폰, 아이튠스 발명

<창조성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



자료: 다나 미첼라우(2007), '카네기', 루이스 파커(2003), '헨리포드와 자동차산업', 진 레진스키(2006), '빌게이츠', 월터 아이작슨(2011), '스티브잡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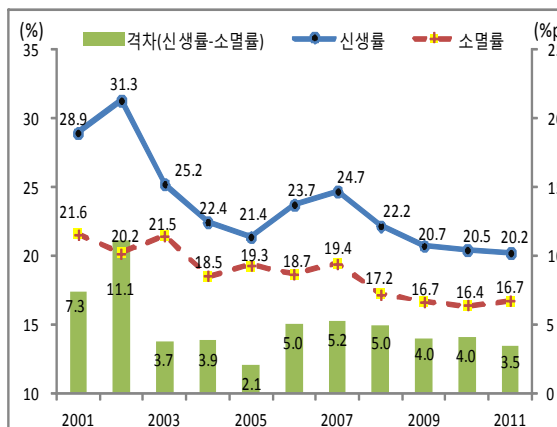
○ 기업가정신의 필요성

- 최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기업가정신 쇠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국내 창업의 활력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신생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기업가정신이 퇴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가동사업자 대비 신규 사업자로 나타내는 기업신생률은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하고 있음

- 이는 국민들의 기업가정신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2010년 이후 기업가정신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들은 기업가정신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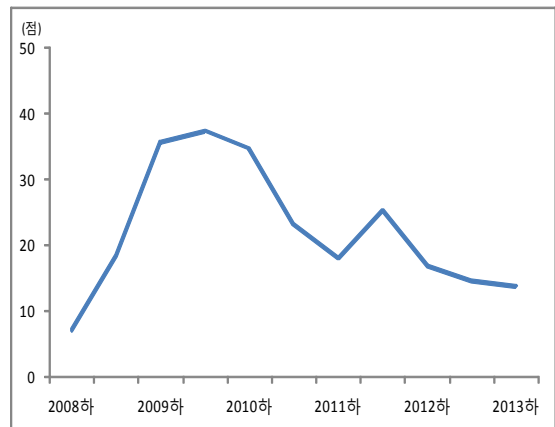
- 따라서, 정주영 13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가 이룩한 성과와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정주영과 현대그룹이 한국 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봄¹⁾
 - 1995년 전후는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기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상회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점

<기업 신생·소멸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창조형 창업이 없다'(2013.4)
 주: 신생률=(각년도 신생기업)/(각년도 가동기업)*100
 소멸률=(각년도 소멸기업)/(각년도 가동기업)*100

<국민들의 기업가정신 인식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과 대한상의 '기업호감도 조사'
 주: 기업가정신 인식 점수는 기업가정신의 증가, 감소 여부를 지수화한 점수(최고 100점부터 최저 -100점)

1) 1970년 이전 자료의 부족으로 기여의 산출이 어려우며, 1995년 이후는 현대그룹의 분리에 따라 단일 기업으로서의 산출이 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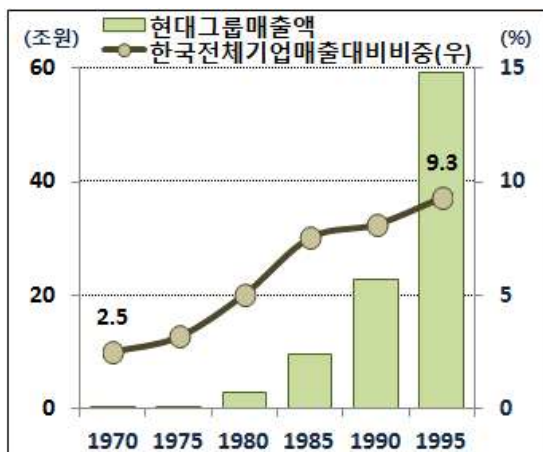
2. 기업가 정주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

- 정주영이 이끈 현대그룹의 성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과 매출 증대에 기여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 전체 기업의 매출은 1970년 1.0조 원에서 637.3조 원으로 증가
 - 같은 기간 현대그룹의 전체 매출 규모는 251억 원에서 59.2조 원 성장(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36.4%)
 - 동시에 한국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의 비중은 1970년 2.5%에서 1995년 9.3%로 증가

- 한국 수출 증대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 한국의 토대를 마련
 - 1975년에서 1995년 사이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4.6억 달러에서 140.7억 달러로 증가
 - 1975년의 현대그룹 수출액은 2.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초 연간 수출 1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1995년에는 140.7억 달러를 기록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11.3%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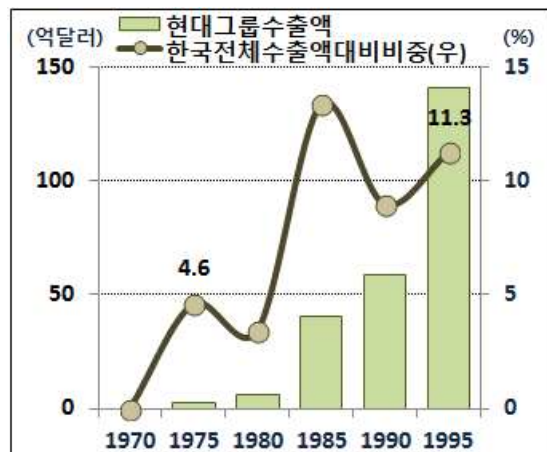
<매출액 추이>



자료 : 현대50년사, 한국은행.

주 : 한국 전체 기업 매출 대비 비중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준.

<수출액 추이>



자료 : 현대50년사, 한국무역협회.

○ 중화학공업화 및 첨단산업화 선도

- 현대그룹은 1990년대까지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선도
 - 건설,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간산업 생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 특히 건설 사업은 한국의 초기 건설 산업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국가 인프라 건설에 공헌
 - 1996년 건설 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6.4조 원으로 한국 전체 건설 산업 매출액의 6.3%
-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사업 등은 한국의 주요 중화학 및 첨단산업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
 - 한국 운송 기계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현대그룹은 1995년 한국 자동차 판매의 48.2%(121.9만 대), 조선 건조량의 39.9%(226.0만 GT)를 담당
 - 이후 첨단산업에 참여하면서 1995년 기준 반도체 생산액은 40.0억 달러로 당시 한국 반도체 3사 생산 총액의 25.0%를 차지
- 이밖에 해운 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교역의 주요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등 한국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
 - 1996년 해운 매출액 2.1조 원은 당시 한국 전체 해운 산업 매출액의 21.8%에 해당

<1995년 주요 업종별 매출 및 한국 내 비중 >

	매출 총액	건설	자동차	조선	반도체	해운
한국	637.3조원	100.7조원	253.1만대	566.3만GT	159.7억달러	9.8조원
현대 그룹	59.2조원	6.4조원	121.9만대	226.0만GT	40.0억달러	2.1조원
(비중)	(9.3%)	(6.3%)	(48.2%)	(39.9%)	(25.0%)	(21.8%)

자료 : 한국은행, 현대50년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현대건설, 현대상선 사업보고서.

주 : (1) 건설 및 해운 매출액은 자료의 부재로 1996년을 기준으로 비교
 (2) 한국 전체 매출액, 건설, 해운 매출액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 매출 기준.

○ 세계 수출 시장의 개척

- 현대그룹은 1960년대의 건설, 1970년대의 자동차 및 조선, 1980년대의 반도체 등 각 시기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기여
- 1960년대 및 1970년대 한국 건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등 건설 강국으로의 성장에 공헌
 - 1960년대 및 1970년대 한국 건설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한편, 해외 수주 활동을 지속하면서 1995년에는 한국 해외 수주의 22.4%를 담당
- 1970년대 이후의 자동차 및 조선업의 수출은 한국 운송 기계 산업 수출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각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
 - 1995년의 자동차 수출은 47.3만 대(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의 39.9%)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
 - 같은 시기 조선 수출 규모는 225.3만 GT, 한국 총 조선 수출의 39.9%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 이밖에 한국 반도체, 해운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한국 첨단 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한편, 상품 수출의 기반을 제공
 - 1996년 기준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0%(22.9억 달러)에 달하는 등 1980년대 첨단산업의 수출 상품화와 함께 하였음
 - 이밖에 해운 수출액은 26.5억 달러(한국 총 해운 수출의 29.2%)로 한국이 해운 강국의 위치에 오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가능

<1995년 주요 업종별 수출 및 한국 수출 내 비중 >

	수출 총액	건설	자동차	조선	반도체	해운
한국	1,250.6억달러	85.1억달러	97.8만대	565.3만GT	152.4억달러	90.9억달러
현대 그룹	140.7억달러	19.0억달러	47.3만대	225.3만GT	22.9억달러	26.5억달러
(비중)	(11.3%)	(22.4%)	(48.3%)	(39.9%)	(15.0%)	(29.2%)

자료 : 무역협회, 현대50년사, 해외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현대전자, 현대상선 사업보고서.

주 : 반도체 및 해운 수출은 자료의 부재로 1996년을 기준으로 비교

○ 한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 기업가 정주영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은 한 명의 기업가가 국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 사례
 -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에서 현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의 핀란드 경제를 전인한 노키아와 비견 가능
 - 2004년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4%, 수출의 21%를 담당하는 등 당시 선진국에서 단일 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기업이었음
- 1990년대 중반 납세를 통해 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협력업체를 비롯한 각 산업 기업체들의 성장에 기여
 - 1995년 기준 그룹의 법인세는 3,541억 원(한국 기업 전체 납세액의 6.1%)
 - 1997년의 현대그룹의 계열사는 49개였으며, 각 계열사들의 협력업체 수는 1,248개로 이는 한국의 개인 사업체를 제외한 본사 기준 전체 기업의 8.7%
- 수익 창출 및 기업의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의 발전에 공헌
 - 1995년 기준 그룹의 전체 매출(59.2조 원)은 당시 한국 전체 기업 매출의 9.3%에 해당
 - 같은 시기 전체 종업원 수는 15.8만 명으로 이는 한국 내 회사 법인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의 3.0%를 차지

<기업가 정주영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헌(1995년)>

법인세	기업체 수	매출액	종업원
3,541.1억원	현대 계열사: 49개 협력업체: 1,248개	59.2조원	15.8만명
전체 법인세 대비 6.1%	전체 기업체 수 대비 (개인사업체 제외) 8.7%	전체 기업 매출 대비 9.3%	전체 기업 법인 종사자 수 대비 3.0%

자료 : 현대50년사, 한국은행, 통계청.

- 주 : (1) 법인세 비중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준
- (2) 종업원 비중은 한국 전체 회사법인 종사자 기준
- (3) 기업체 수 비중은 1997년, 개인사업체를 제외한 본사 기준.

3.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정주영의 기업가정신

-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영과 같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경영자들이 많이 나와야 함
- 이하에서는 차세대 경영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 21세기 한국의 기업가들도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발상의 전환을 이끈 창조적 사고

- 정주영은 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가로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어 실천
 - 이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창조적인 역사적 인물로 기업인 중에서는 아산 정주영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이유가 됨²⁾
-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한 정주영의 창조적 경영 방식은 특히 1998년 소떼 방북에서 잘 나타남
 - 소떼 500마리와 함께 민간인 최초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경유하여 방북하는 이벤트를 통해 대내외에 남북협력의 서막을 알림
 - 두번에 걸쳐 1000마리가 아닌 1000+1마리와 함께 방북한 것은 향후 계속될 교류의 또다른 시작을 의미이며, 특히 임신한 소를 의도적으로 많이 데리고 감으로써 북한에 대한 각별한 지원 의지를 천명함
- 창조적 정신은 기업 발전을 위한 핵심이며, 국가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정주영의 창조 정신을 교훈 삼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함
 -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주영의 창조 정신을 모델 삼아 침체된 기업 경영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조적인 역사적 인물로 세종대왕(%), 장영실(%), 이어 기업인들 중에서 정주영(5.7%)이 가장 많이 선택됨

○ 둘째, 도전과 긍정의 캔두이즘(Candoism)

- 정주영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지고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도록 임직원을 독려
 - 현장에서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임직원들을 앞에서 이끌면서 혁신을 추구함
-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주영의 캔두이즘은 조선소 건설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업무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추진력을 통해서 성공
 - 조선 사업 진출 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조선소 건설, 선박 수주 및 건조의 동시 진행형 작업을 통한 대폭적인 비용 절감과 가격 인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사업 성공의 주요 요인이었음
- 요즘처럼 경영 환경의 변화 속도와 불확실성이 더해 감에 따라 미래를 통찰하고 더 커진 위협에 도전하기 위해 캔두이즘이 더욱 필요
 -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캔두이즘의 추진력은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국내기업들의 역동적인 기업 혁신 기반이 될 수 있음

○ 셋째, 세계 지향의 글로벌 마인드

- 정주영은 사업 초기부터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을 감안하여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활용
 - 글로벌 시장 개척 과정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태동기, 중공업 및 자동차로의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확대기, 건설·중공업·자동차·전자를 중심으로 한 성숙기 등으로 구분됨
- 처음부터 과감하게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각 사업마다 공략 포인트를 분석하고 절절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에 성공
 - 건설업의 중동 시장 진출시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선진 기업에 대한 최대의 공격 전략이 가격임을 파악하고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누구도 예상 못한 방안들을 창출하여 적용하였음

- 오일 쇼크 이후 저가의 소형 승용차 수요 증대와 일본 업체들의 미국에 대한 수출 자율 규제를 활용한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도 틈새시장 전략임
-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규모가 작은 경제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임

○ 넷째, 신뢰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 정주영은 자신을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기업 역시 신뢰 및 상생을 실현하는 사회의 일원임을 강조
 - 더불어 사는 정신은 화합, 조화, 공생을 지향함으로써 경영의 원대한 목표를 이웃, 사회, 국민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두는 것임
 - 자신이 축적한 부와 기업가로서의 원대한 지향점은 바로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행복의 증진에 두고 있었음
- 각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수교의 가교 역할이나 올림픽 개최 등을 통해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가 향상
 - 한·소 경제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한·러 수교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국가 간 수교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함
 - 서울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도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으로 약진하는 토대를 제공함
 -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인재 육성을 위한 일련의 장학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노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자세를 대변함
-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보편적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한 정주영의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 도출이 요구
 - 기업이 인류, 국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이웃을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창조적 예지

- 정주영은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므로 남북경협을 통해 민족의 균형 발전시키고 한반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 오래 전부터 자원 경쟁을 예견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시베리아 가스 개발과 TCR, TSR 등과 연계한 상품 수출 등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함
 - 이는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통일 기반 조성, 더 나아가서는 시베리아와 연계한 개발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음

- 남북 관광 등 협력이 용이한 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점차 평화와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으로 확대해나가는 전략
 -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토지, 관광 자원, 양질의 노동력 등을 결합시키는 상생의 경협 모델임
 - 경제 협력을 통해 휴전선과 군사분계선을 경협 지역만큼 사실상 북상시킨 효과를 가져왔으며, 남한의 대북·통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 교육장의 역할을 함

- 향후 금강산·개성 사업 등을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 모두에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남북 상생의 경제통합 모델 개발이 필요
 - 민간의 상호 신뢰 노력이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간접 지원하고, 이러한 정책이 다시 기업의 대북 사업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HRI**

장후석 연구위원 (2072-6234, chahus@hri.co.kr)

김필수 선임연구원(2072-6238 pskim@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3.9	2.8	3.8
	민간소비(%)	2.4	1.7	1.5	1.8	2.1	2.2	1.9	2.7
	건설투자(%)	-4.7	-2.2	2.4	7.2	8.6	8.1	6.9	2.5
	설비투자(%)	3.6	-1.9	-11.9	-4.6	1.5	9.9	-1.5	6.7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6,067
	증감률(%)	(19.0)	(-1.3)	(0.4)	(0.7)	(2.7)	(4.7)	(2.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7	1,260	1,331	5,156	5,697
	증감률(%)	(23.3)	(-0.9)	(-3.0)	(-2.8)	(0.3)	(2.5)	(-0.8)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